

# 牛峯李氏大宗報

發行 人: 李 萬 寧  
 編 輯 人: 李 喆 衡  
 發 行 處: 牛峯李氏大宗會 02)753-6340~1  
 서울시 중구 무교동 25-1 원창빌딩 512호  
<http://woobonglee2000.hihome.com>  
 印 刷 處: 선경정보인쇄(주) 02)776-687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 『선조 묘 순례 행사 개최』 충북 청원군 가덕면 청용리 능갓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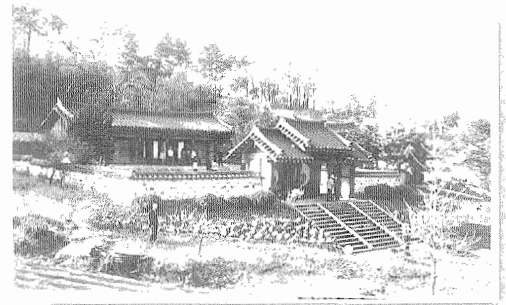
우봉이씨 청장년회가 매년 주최하는 조상 성묘 순례 행사가 2007년도에는 청원군 가덕면 청용리 능갓 집성촌에서 대종회 회장 및 임원, 청장년회 회장 및 임원, 의열공 종친회 임원과 이 지역 종친회 회장 및 임원, 회원 등 18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추원재(능갓 대종 12위, 소종 149위 모신곳)를 참배하고 11세 흥문 교리 휘 전 묘와 18세 가선 대부 휘 만성공 묘를 참배한후 대종회, 청장년회 선조 묘 순례 환영 및 청주, 청원 지역 종친회 경축 기념으로 우봉이씨 청장년회에서 찬조한 소나무 12년생을 만성공 묘소 위쪽에 식수를 했다. 이 식수에는 대종회 회장 만녕, 부회장 학구, 청장년회 회장 문녕, 의열공 장손 장녕, 만성공 종손 범호, 영모당 회장 현무, 청주지역 종친회 회장 순녕, 만성공 문중 회장 무성 등이 참여 하였다.

추원재 앞 마당에서 거행된 기념행사는 능갓 문중 이범동의 사회로 대종회 및 청장년회 회장, 임원과 특별 초청일자,

이지역 종친회 임원들을 인사 소개하고 공주사범대학 교수로 재직중인 이범동이 “우봉인이여 영원하라” 시를 낭송한 후 효부상 수상자 송임순에게 대종회 회장이 공로패와 부상 은수저 한 벌을 수상 하였다. 그리고 능갓 문중 회장 이무성의 환영사에 이어 청장년회 회장 이문녕의 인사말과 대종회 회장 이만녕의 격려사를 마친후 장학기금 일백만원을 이무성 회장이 6개 종친회(의열공과 만성공 종친회, 청주 노년 종친회, 청주 청장년회, 재경 능갓종친회, 청주 딸 머느리게, 능갓 딸 머느리게)를 대표하여 대종회 회장께 전달했다. 이어서 청주 여락당 문화 사랑방 부위원장 박인숙(이군무 배)외 5명이 특별 출연하여 합창으로 경기민요의 2곡을 열창하여 많은 박수 갈채를 받았다. 행사 2부에는 노래자랑 및 레크레이션이 이어졌다. 서울에서 온 대종회, 청장년회 임원들은 이곳 근처에 있는 청남대를 관광한후 귀경길에 오창면에 있는 송천서원에 들러 삼우당 공 이지충을 참배하고 오늘의 행사를 마쳤다.



【선조묘 순례 식장】



【삼우당공 위패를 모신 송천서원】



【선조묘소 순례 참석자】



【청주 여락당 문화사랑방 회원들이 경기민요 합창】



【기 념 식 수】



【대종회 회장이 수상자 송임순에게 효부상을 수상함】

# 2006년도 대총회 정기총회 개최 장학기금 모금 달성에 감사

매년 개최하고 있는 대총회 정기총회가 2006년 11월 17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전쟁기념관 "뮤지엄 웨딩홀 2층 크리스탈룸"에서 각지역에서 150여명의 일가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는 태녕 청장년회 운영위원의 사회로 먼저 국민의례와 시조공 묘소가 있는 경기도 장단군 소남면 마담동 복향 간좌(良坐)를 향해 시조 문경공에 대한 입례재배, 그리고 "우봉인이여 영원하라" (李茂原 詩) 축시를 사회자가 낭송하였다. 이어 참석자중 제일 나이가 많은 이무원(李茂淵)일가에게 년고행존부문으로 금일봉을 수여하고, 장학기금 모금에 적극 협조해 주신 병덕(丙德) 부회장, 순녕(舜寧) 부회장, 창무(昌茂) 부회장, 총무(忠茂) 사직공 보령총중 총무, 그리고 효행부문에 송인숙 일가 등에게 공로패와 부상으로 은수저한 발칙을 수여하였다. 대회사에서 만녕 회장은 "3년전 장학기금 모금사업을 시작하여 이제는 목표하였던 3억원의 기금 확보가 달성해 가고 있다"고 감사 말씀 전하면서 처음에는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 않았지만 2008년부터는 모금된 장학기금의 이차로 2,3명에게 대총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 이라고 했다. 또한 노장년층이 조화된 그리고 미래를 이끌 청소년들까지 각계각층의 문중이 중증사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문녕 청장년회장의 인사와

대총회 회장단, 고문, 총무위원 및 자문위원, 청장년회 임원, 지역위원 및 각 소총중회장의 인사 소개가 있었다. 이어서 명준 감사는 2006년도 수지 결산의 감사보고에서 제반 기준에 준거하여 회계처리가 정확히 되었다고 전제하고 세입 및 세출이 건실하고 공정타당하게 표시되어 있었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철형 재무담당역의 대총회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친뒤 끝으로 제48회 사법고시 합격자 이강길(경주 안강 고려대졸)군에게 격려금 금일봉을 회장이 전달하고 난 후 폐회를 선언하고 화기에애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나누며 종친간의 정을 나누었다.

### 2006년도 공로자 표창 내용



병덕(丙德)일가는 대총회 부회장의 중책을 10여년간 수행하면서 대총회 역사의 산증인으로서 집성촌 형성에 있는 두봉공, 대사간공 묘소의 치산치수에 중추적 역할을 하였고, 대총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학기금 모금에 적극 동참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한 공로가 지대하였다.



순녕(舜寧)일가는 대총회 부회장, 청주지역 중총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회원들의 친목도모, 집성촌 유지 발전에 공로가 지대하며, 장학기금 모금에 청주 만성공 종인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기여하여 약정한 금액을 완수케 하였다.



창무(昌茂)일가는 청장년회가 준 폐위기에 처한 시기에 회장직을 맡아 심혈을 기울여

재건하여 활성화 시켰으며, 대총회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대총회 발전에, 장학기금 모금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총무(忠茂)일가는 사직공 보령총중 총무의 중책을 맡아 선영의 수호와 중증재산의 관리,

증식, 종인들의 친목도모에 공헌하였고 장학기금 모금에 적극 참여하도록 주선하였으며 이호 정공 효자 정려 각 복원에 지대한 공로가 있었다.

송인숙 일가는 의열공 27세손인 준무의 아내로 27세에 남편을 여위고 95세까지 장수하면서 조상의 제례와 상례 등을 성심성의껏 모시어 열녀효행 가문의 명예를 널리 알려 우봉이씨 가문을 빛내고 충, 효, 예를 몸소 실천 하였다.

### 2006년도 정기총회 찬조금 명세

萬寧 (대총회 회장)	1,300,000
秉茂 (대총회 부회장)	1,000,000
청백리공 총중	300,000
丙七 (대총회 고문)	200,000
丙德 (대총회 부회장)	200,000
漢九 (대총회 부회장)	200,000
廬齋公파 宗中	200,000
이만녕 (아바네다식품)	200,000
부사공 연천총중	200,000
昌茂 (대총회 부회장)	200,000
참봉공총중	200,000
안강화수회	200,000
영모당	100,000
丙泰 (사무총장)	100,000
文寧 (청장년회 회장)	100,000
學九 (대총회 부회장)	100,000
중성군 수원총중	100,000
丙惠 (총무위원)	100,000
泰寧 (대총회 부회장)	100,000
참판공 총주 소총회	100,000
丙國 (총무위원)	100,000
아산파 소총회	100,000
아산파 대총회	100,000
正茂 (영풍합금)	100,000
根寧 (총무위원)	100,000
昌茂 (대총회 감사)	100,000
惠寧 (사직공보령총회장)	100,000
문경총중	100,000
昌寧 (자문위원)	100,000
範瑞 (대총회 부회장)	100,000
丙積 (대사간 파주교하)	100,000
丙鎬 (총무위원)	100,000
順寧 (감찰공 남양주)	100,000
昇茂 (의열공 옥천)	80,000
병국 (소시아스 주)	70,000
계	6,650,000

#### ● 축하회환 증정 일가

- ① 萬寧 (주) 광일 회장
- ② 秉茂 아세아그룹 회장
- ③ 丙錫 (주) JDC TEX 사장



[정기총회 식장]



[이만녕회장과 수상자들 - 순녕, 병덕, 회장, 총무, 송인숙]



[제48회 사법고시합격자 이강길과 회장 이만녕]

# 牛峯李氏 三州 獎學會 發足

## 장학기금 모금 목표액 달성-2008년부터 장학금 지급

대중회가 2001년부터 전개하고 있는 장학기금 모금 목표액 3억원이 드디어 달성해 가고 있다. 따라서 지난 2007년 2월 2일 장학회 이사회의를 개최하여 그 명칭을 “우봉이씨 삼주 장학회”라 하고, 장학회 회칙, 내규 등을 제정하고 2008년부터 장학기금의 이자로 1년에 대학생 2,3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장학회 회칙 및 장학기금 모금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장 학 기 금 모금현황

2007. 9. 30 현재

직 위	성 명	회원명	약정액	납부액	납부일	비고
회 장	萬 亨	평생회원	1억원	100,000,000	06.10.11	완납
부 회 장	秉 茂	평생회원	1천만원	10,000,000	05. 1.17	완납
감 찰 공	윤인소중증	특별회원	5백만원	5,000,000	05. 7.16	완납
부 회 장	漢 九	평생회원	1천만원	6,000,000	06.10.18	본납
부 회 장	丙 德	평생회원	1천만원	6,000,000	07. 2. 6	본납
의 열 공	만성서울문중	특별회원	2백만원	2,000,000	05.12.23	완납
의 열 공	만성공문중	특별회원	1백만원	1,000,000	05.12.23	완납
부 회 장	淸寧(만성공)	특별회원	1백만원	1,000,000	05.12.23	완납
의 열 공	龍中(만성공)	특별회원	1백만원	1,000,000	05.12.23	완납
의 열 공	庚浩(만성공)	특별회원	1백만원	1,000,000	05.12.23	완납
의 열 공	庚會(만성공)	특별회원	1백만원	1,000,000	05.12.23	완납
의 열 공	茂鍾(만성공)	특별회원	1백만원	1,000,000	06. 6.30	완납
부 회 장	學 九	특별회원	1백만원	1,000,000	05. 4. 7	완납
자문위원	淸 亨	특별회원	5백만원	5,000,000	07. 8.16	완납
자문위원	範 周	특별회원	1백만원	1,000,000	05.10.28	완납
중무위원	丙 國	특별회원	1백만원	1,000,000	06. 5.17	완납
부 회 장	永 範	평생회원	1천만원	2,000,000	06.11.13	본납
부 회 장	泰 亨	평생회원	1천만원	3,000,000	05.12.30	본납
중무위원	忠 範	평생회원	1천만원			약정
감 사	昌 茂	특별회원	5백만원			약정
사 직 공	보령문중	평생회원	1천만원	10,000,000	06.12.22	완납
청백리공	참판,부사공	특별회원	1천5백만원	15,000,000	06. 3.20	납부
중무위원	丙 賢	특별회원	1백만원	1,000,000	06. 4.24	완납
의 열 공	만성공문중	특별회원	1백만원	1,000,000	07. 5. 7	완납
의 열공육친	의열공육친	특별회원	1백만원	1,000,000	07. 5.16	완납
대 중 회	세보발간잔액		7천4백만원	74,393,000		
수입이자				10,144,000		
계			288,000,000	260,538,000		

\* 泰亨부회장 마감후 추가금 2,000,000원 10월 16일 납부

### 【우봉이씨 三州 장학회 회칙】

####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명칭) 본회는 우봉이씨 삼주 장학회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본회는 우봉이씨 대중회에 둔다.

#### 제 2 장 목적과 사업

- 제3조: (목적) 본회는 우봉이씨 가문의 자녀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가문과 국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유익한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장학기금 조성 사업
2. 장학사업
3. 전향과 관련된 사업

#### 제 3 장 회 원

제5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우봉이씨 종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회에 입회코자 할 때는 소정의 장학기금을 기탁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제6조: (회원의 종류) 본회 회원은 평생회원, 공로회원, 특별회원, 보통회원으로 구분한다.

1. 평생회원 : 장학기금 1,000만원 이상 회사한 분
2. 공로회원 : 장학기금 500만원 이상 회사한 분
3. 특별회원 : 장학기금 100만원 이상 회사한 분
4. 보통회원 : 장학기금 10만원 이상 회사한 분

#### 제 4 장 임 원

제7조: (임원의 종류) 본회에는 명예회장 1명, 회장(이사장) 1명, 부회장(부이사장) 1명, 이사 10명 내외, 감사 2명, 간사 1명을 둔다.

제8조: (선임)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이사장 및 부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간사는 이사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여 이사회 의 동의를 받는다.

제9조: (임기) 본회의 이사장은 자동적으로 장학회 회장이 되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기의 만료후라도 후임자의 취임시 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보결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임무) 각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일체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부이사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에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본회의 회계감사를 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5. 간사는 본회의 회계 및 장학기금 조성 사업에 관한 임무를 관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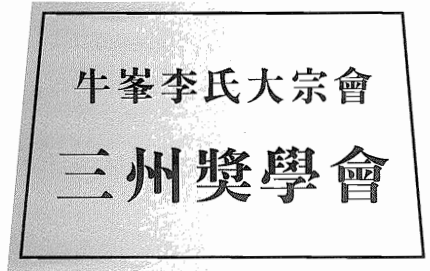
#### 제 5 장 총 회

제11조: (총회소집) 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2월 중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및 회원 과반수 이상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2조: (정족수)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최하여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권한)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개정
2. 이사 및 감사의 선출
3. 예산 결산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일체 사항



## 牛峯李氏大宗會 三州獎學會

#### 제 6 장 이 사 회

제14조: (이사회) 이사회는 이사장이 요청시 또는 3인 이상의 이사가 요청시 소집한다.

제15조: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6조: (권한) 이사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장학생의 선발기준의 결정 및 장학생, 장학금의 결정
3. 자금 조성사업의 중요사항 결정
4. 회의 회계사항 보고
5. 기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제 7 장 재 정

제17조: 본회의 경비는 다음으로 충당한다.

1. 회원 또는 독지가의 회자금
2. 사업 수익금
3. 기타 성금

제18조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 【부 칙】

제19조: 본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발효한다.

제20조: 본 회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유효하다. 단, 장학금 지급은 2008년부터 시행한다.

### 장 학 기 금 신 청 안 내

1. 서류 접수 장소 및 마감일
  - 접수처: 대중회 사무실 · 마감일: 2008년 1월 31일 오후 5시까지
2. 제출서류
  - 장학지원서(사친 꼭 부착할것) · 추천서(추천인, 지역위원 서명날인)
  - 재학(입학)증명서 1부 (사본가능) · 성적증명서 또는 성적표 1부
  - 장학금 수혜확인서 또는 비서수혜확인서(학교에서 발급)
  - 등록금 고지서 복사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3. 유의사항
  - ① 삼주장학생의 자격은 우봉이씨 종인의 자녀 대학생으로 한다.
  - ② 보호자의 회사등에서 학자금 지원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 ③ 타기관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은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 ④ 학교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이며 성적은 장학금 지급 전 학기를 기준으로 한다. 단, 성적기준에는 미달되나, 본 장학회 내규 제1조에 해당 되는자는 특별히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⑤ 서류 미비자는 제외되며 1가정에서는 1자녀만 지원할 수 있다.
  - ⑥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 장학지원서, 추천서는 대중회사무실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02-753-6340-6341)

## 2007 정예 신년아례외 개최

우봉이씨 대종회와 청장년회가 공동주최한 정예 신년 하례회가 지난 1월 13일 11:00에 서울 태평로에 있는 코리아나 호텔 19층 매화홀 연회장에서 대종회 임원단 및 종무위원과 청장년회 임원 그리고 여러 종인들 등 40여명의 일가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하례회는 문병 청장년회 회장의 인사와 만병 대종회 회장의 신년사가 있었으며 영범 부회장의 문경에 관한 아사를 경청하였다. 이날 참석한 일가와 찬조해 주신 일가는 다음과 같다.



### ♠ 찬조해 주신 분

대종회 50만원, 이만녕회장 30만원  
이병덕부회장 10만원, 이병무부회장 10만원  
이창무부회장 10만원, 이영범부회장 20만원  
청장년회장 이문녕 10만원 전청장년회장  
이법탁 10만원, 청장년부회장 이선영 10만원.  
전장년회총무 이무분 10만원, 청장년운영위원  
이해영 10만원 계 180만원

### 【참석자】

만병, 학구, 한구, 창무, 영범, 인병, 길웅, 병국  
용무, 종무, 철형, 무용, 범택, 문녕, 선영, 우영  
병철, 남영, 덕영, 도영, 무준, 병국, 병남, 수영  
태영, 해영, 창무부회장 장남, 부녀회원

## 종무위원 외의 개최

1/4분기 종무위원 회의가 지난 2월 6일 대종회 사무실에서 개최되었다. 먼저 만병회장은 인사말씀에서 "올해는 장학회 회칙을 제정하고 장학기금 모금 달성에 적극 나서서 내년부터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기 바란다" 했다. 이날 회의는 200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중간 감사 보고와 2006년 정기총회결과 보고 및 "문중내역 이야기" 출판에 관한 토의가 있었다.

또한 2/4분기 종무위원 회의가 7월 11일 개최되어 대종회 규약 개정안을 심의하여 가결시켰다. 개정내용을 요약하면 명예회장은 회장 역임자로서 종무위원의 권리와 의무를 갖게 하고 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하되 연임할 수 있게 하고 사무총장을 사무국장으로 담당역을 간사로 개칭하기로 하고 사무국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중 1명을 선임하여 비상근으로 1월에 2,3회 출근하여 사무국장 직무를 대행토록 했다.

## 병태 대종회 사무총장 별세



대종회 사무총장이 2007년 1월 13일 오전 지병으로 타계했다 74세

경기도 김포가 고향인 고인은 중앙대학교 신문방송 대학원을 졸업하고 공무원, 진해화학(주)을 거쳐 국방부 전사 편찬위원회 책임편찬위원을 역임했다. 사무총장재직시 우봉이씨세보 발간에 헌신하였고 대종회발전과 감찰공 묘소(고양시

덕양구 향동소재) 치산치수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였다. 저서로는 "나라 지키기" "석보한호의 생애" 등이 있으며 미완성 "문중내역 이야기" 가 있다. 유족으로는 장남 학병등 1남 1녀가 있다.

## 2007 대종회 수지결산서

2006.10.1 ~ 2007.9.30

세입지부		세출지부	
과목	금액	과목	금액
총회회비	3,440,000	총회경비	7,857,320
찬조금	6,650,000	보수	15,050,000
회장단회비	14,100,000	활동비	400,000
종무위원회비	5,600,000	출장비	
수입이자	2,164,999	소모품비	831,500
광고료수입		통신비	691,750
잡수입	240,000	회의비	130,000
세보대금	380,000	관리비	6,125,020
		접대비	3,047,900
		경조비	2,712,000
		찬조비	1,100,000
		대중보인쇄비	1,700,000
		잡비	744,000
소계	32,574,999	소계	40,389,490
전기이월	68,869,927	차기이월	61,055,436
총계	101,444,926	총계	101,444,926

## 2007 임원 부담금 납부 현황

2007. 9. 30 현재

직위	성명	납부액	납부일자
회장	萬寧	4,200,000	07. 7. 4
부회장	漢九	1,200,000	07. 9. 28
부회장	學九	1,200,000	07. 4. 13
부회장	丙德	1,200,000	07. 4. 6
부회장	舜寧		
부회장	淸寧		
부회장	泰寧	1,200,000	07. 7. 4
부회장	文寧		
부회장	秉茂	1,200,000	07. 5. 10
부회장	昌茂	1,200,000	07. 5. 10
부회장	範瑞	1,200,000	07. 2. 9
부회장	永範	1,200,000	07. 9. 6
부회장	範卓	300,000	06.10.23
감사	明俊	1,200,000	07. 8. 31
감사	昌茂	600,000	07. 9. 27
종무위원	丙錫	600,000	07. 6. 7
종무위원	丙國	600,000	07. 3. 8
종무위원	丙鎬	500,000	07. 5. 22
종무위원	丙惠		
종무위원	吉雄	1,200,000	07. 7. 11
종무위원	時寧	600,000	07. 4. 6
종무위원	德寧	300,000	07. 1. 15
계		19,700,000	

\* 丙惠 종무위원 마감후 600,000원 10월 9일 납부  
\* 文寧 부회장 마감후 600,000원 10월 15일 납부

# 시각장애인들에게 밝은 빛을 줄 수만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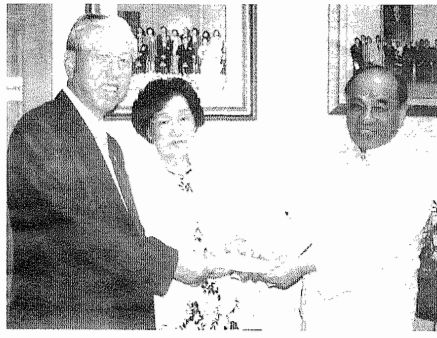
## 고희 잔치 대신 실로암아이센타 건축 후원금 사천만원 전달

지난 7월 25일 오후 이만녕 대종회 회장(영등포 노회, 도림교회 장로), 정희영 권사 부부가 다정히 등촌동의 실로암안과병원 원목실을 방문해 실로암아이센타 건립 후원기금을 전달했다. "아내 정권사가 올해 고회를 맞은 기념으로 실로암 아이센타 건립을 위해 2천만원을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정 권사의 고회를 기념하기 위해 멀리 파리에서부터 날아온 딸을 포함한 3남매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이회장은 실로암아이센타 건축에 관한 기도 및 후원 관련 안내를 받았던 것이 생각났고, 이에 대해 정 권사는 물론 온 가족은 기쁨으로 동의하여 후원을 결정한 것이다.

더욱이 이 회장은 정 권사의 고회 기념 후원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본인도 아내와 함께 후원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2천만을 추가하여 이 회장 정 권사 부부는 총 4천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한 것이다. 이만녕 장로와 실로암안과병원은 이미 오래 전부터 그 인연이 깊다. 이 장로는 총회복지재단에 감사, 이사, 이사장으로 20여년을 봉사해 왔으며 안양 원로원을 짓는데도 큰 기여를 하는 등 약하고 힘 없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헌신에 늘 동참해 왔었다. 때문에 자연히 실로암안과병원에 대한 애착과 돕고자 하는 마음을 늘 가져 왔었던 것이다.

이만녕 장로는 갈등이 있는곳에 화합을 만들어 내며 본인이 거하는 곳을 평화롭게 만드는 "평화의 사도"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



또한 영등포 노회남선교회 회장, 장로회 회장, 부노회장을 역임했으며, 본 교단 총회 회계와 남선교회전국연합회 부회장도 지내는 등 총회연합 사업에도 열심을 아끼지 않았다. 현재는 평신도 신문사 이만녕 장로는 갈등이 있는곳에 화합을 만들어 내며 본인이 거하는 곳을 평화롭게 만드는 "평화의 사도"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 또한 영등포 노회남선교회 회장, 장로회 회장, 부노회장을 역임했으며, 본 교단 총회 회계와 남선교회전국연합회 부회장도 지내는 등 총회연합 사업에도 열심을 아끼지 않았다. 현재는 평신도 신문사 명예회장과 한국장로신문사 실행사로 활동하며 교계언론과 문서사역을 위한 수고를 하고 있다.

정 권사는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을 지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동기와 짧은 소감을 전했고 곁에 있던 이 장로는 정 권사에 대해 "이 장로는 정 권사에 대해 "성격이 워낙 겸손하고 교회에서도 사람들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이 자리에도 함께 오기 힘들었다"며 아내를 설명했다. 이 장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우리가 후원할 수 있을때 하기로 한 것뿐이다 하지만 아내의 환갑잔치도 못해 주었는데 고회도 잔치없이 지나가게 되어, 팔순잔치를 준비하며 앞으로는 더욱 더 잘해주겠다"고 부부애를 드러냈다. 또한 "바라기는 우리들의 작은 행위가 시각장애인들이 밝은 빛을 보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선태 목사는 "이 장로님 부부의 믿음과 사랑을 밑거름으로 세워지는 아이센타 건립, 이 역사적인 현장 가운데 더욱 많은 사람들의 후원과 협력의 손길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가정의 경사스러운 일이나 기념할 일이 있으신 분들은 실로암아이센타 건립에 동참함으로써 더욱 의미 있는 기념과 역사를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실로암아이센타는 벽돌 기증부터 한 평, 한 실, 한 층 기증까지 믿음의 동역자들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다.

### 계시판

#### 동정

1. 장애 신년아래회(1월 13일) 개최 코리아나호텔 7층 연회장
2. 우봉이씨대종회 장학회 이사회의(2월 2일) 개최 "우봉이씨 삼주장학회"라고 명칭 확정
3. 대종회 1/4분기 중무위원 회의(2월 6일) 개최 장학회 회칙 제정, 2006년 정기총회 결산보고와 중간 감사보고, 사무총장 대행 부회장 학구씨 추대
4. 청백리공 증친회 정기총회(2월 12일)에서 회장 이만녕 총무 이명준 임원 개선
5. 李元茂 전 감사원 감사관 인사차(3월 12일)
6. 선조 묘 순례 행사 개최 (4월 28일) 만성공문중 청원군 가덕면 청용리 능짓 방문, 대종회 회장이 효부상 시상, 만성공문중에서 삼주 장학기금 일백만원 대종회장에게 전달

7. 李茂錫 중무위원 인사차 (5월 30일)
8. 2/4분기 중무위원회의 회의 개최(7월 11일) 대종회 규약 일부 개정

#### 기쁜일

1. 李丙鎬 중무위원 장남 결혼 2007. 5. 12일 경동한방프라자2층 웨딩의 전당 칸벤션홀
2. 李喆衡 재우간사 차남 준석군 결혼 2007. 5. 26일 천주교 반포성당

#### 슬픈일

1. 李龍茂 흥보간사 모친상 2006. 12. 5일 현대 아산병원 영안실 3층 32호 상주 이용무, 이장무, 이용무 등 3남3녀
2. 李丙泰 사무총장 별세 2007. 1. 13일 삼성병원 영안실 상주 이학녕 등 1남1녀
3. 李德寧 중무위원 모친상 2007. 5. 30일 강남 성모병원 영안실 6호 상주 이덕녕, 이호녕, 등 2남3녀

### 중무위원 추가 임명



李時寧

영진실업주식회사 대표이사



李茂錫

(주) 농심전무이사, 태평농산 대표이사 역임

株式會社 光 一  
KWANG IL CO. LTD.  
代表理事 會長 李 萬 寧

본 사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112-2  
Head Office : #112-2, Hankang Ro 2 Ga, YongSan-Ku, Seoul Korea  
TEL : 02)796-0321 ~4, 797-0321 ~3  
FAX : 02)796-0325

부산사무소 : 부산시 남구 문현4동 815 한일오피스텔 1411호  
TEL : 051)645-0321 ~2 FAX : 051)632-0323  
아 산 공 장 : 충청남도 아산시 풍기동 226  
TEL : 041)542-2555 ~7 FAX : 041)542-2558  
Homepage : www.Kwangil.co.kr

# 李翔 打愚公의 生涯와 政治活動

## I. 家系와 生涯

17세기는 사회적으로 壬辰倭亂과 丙子胡亂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는 시기였으며 정치적으로는 禮訟으로 말미암아 西人과 南人이 치열하게 대립하다가 정권을 잡은 西人 세력이 老論과 少論으로 분립되는 시기였으며 학문적으로는 李珣와 成渾의 學統이 金長生-金集-宋時烈로 계승 발전되어 禮學과 正統性理學의 큰 맥락을 형성한 시기였다.

打愚 李翔(1620-1690)은 朝鮮 후기 山林으로 政界에 진출하여 禮訟과 老少分黨으로 黨爭이 격심해져 가던 17세기 후반 西人-老論계의 신봉으로 중앙 정계에서 활동하는 한편 鄉村에 寓居하면서 후학을 양성하고 향론을 주도하였던 인물이다.

字는 雲學 號는 打愚이며 本貫은 牛峯으로 牛峯李氏 始祖 李公靖의 15세 손이며 監察公파의 中始祖 圻의 6세손이다.

牛峯李氏 8세 斗峰公 吉培는 圻(監察公派中始祖), 埵(大司諫公派中始祖), 埵(司直公派中始祖), 埵(持平公派中始祖)의 4형제를 두었는데 8세 吉培(太宗辛卯式年 文科)를 필두로, 9세 埵(端宗癸酉式年 丁科), 世祖丁丑重試 乙科), 10세 承寧(世祖乙酉式年 丁科), 承健(成宗庚子式年 丙科), 成宗壬寅重試 甲科), 承張(成宗丙午式年 乙科) 11세 塘(中宗戊子別試 乙科), 緝(成宗乙未親試 丙科), 12세 應元(中宗壬午別試 丙科), 之信(中宗癸卯式年 乙科), 之行(明宗戊申廟別試 乙科)의 5대가 대를 이어 계속해서 登科함으로써 牛峯李氏 가문이 두각을 나타내게 시작 하였다.

李翔의 가계를 살펴보면 李翔의 5대조인 李承健은 甲子土禍에 관작을 추탈당하는 화를 입은 대표적인 사림파 인물로 1480년 식년 문과와 1482년 증시문과에 급제하여 賜暇讀書를 한 후 사헌부, 홍문관, 성균관, 사원간의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으며 [成宗實錄] 편찬에도 참여하였다. 弘文館에 재임할 때 宮禁秘事를 논하였다 하여 1504년 甲子土禍 때 관직을 추탈당했다가 1506년(中宗 1) 中宗反正으로 복관되어 禮曹判書에 추증되었다. 李翔의 증조부인 號 葆眞菴 李之信(1512-1581)은 1531년(中宗 26) 進士가 되고 1543년 式年文科에 乙科로 급제 한 후 弘文관 부제학, 三司의 요직을 두루 거치고 [中宗實錄]의 편찬에도 참여하였다. 또 의외에 나가서는 풍속의

교화와 백성의 진흥에 힘써 정승을 받았다.

또한 李之信의 사촌형인 李之忠(1509-1562)은 당시의 사림파의 거두였던 慕齋 金安國(1478-1543)의 문인으로 1537년(中宗 32) 생원시에 합격하였으나 대과에 뜻을두지 않고 오직 후진 교육에만 힘썼다. 宣祖조에 문장과 시로 명성이 높았던 芝川 黃廷或과 樂圃 李海壽등이 그의 문하에서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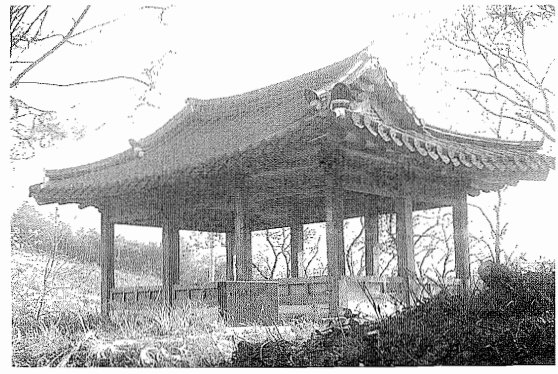
이처럼 조선전기 사림파의 맥을 이어온 牛峯李氏 가문은 壬辰倭亂과 丙子胡亂을 거치면서 충정가문으로서의 면모를 더하여 仁祖대 이후 명문 사족가문으로 굳건하게 자리를 잡게 된다. 李翔의 조부인 李劼(1550-1592)이 壬辰倭亂 때 의병을 모아 적과 대적하던중 流彈에 맞아 전사하였고 부친인 李有謙(生父)은 병자호란때 의병을 모집하여 서울 광나루를 지키다가 강화도 함락 소식을 듣고 의병을 해산하였다. 또 강화도가 함락될 때 仲兄인 李鎰과 부인 同福吳씨, 큰형인 李翬의 부인 高山金씨 3인이 자결하자 조정에서는 이들에게 정려(旌闈)를 내렸는데, 당시 정려(旌闈)는 경기도 고양에 있었다. 李劼과 李有謙의 의병활동과 李鎰과 同福吳씨, 李翬의 처 高山金씨 3인에 대한 명정등 일련의 활동들로 인해 牛峯李氏는 충절가문으로서 명분을 세우게 되었으며 이 집은 이후 명분과 의리를 중시하는 조선 후기 사회분위기 속에서 牛峯李氏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李翔의 부친인 李有謙은 牛峯李氏가 仁祖대 이후 西人-老論 세력의 대표적인 가문으로 손꼽히게 되는 계기를 마련한 인물이다. 그는 趙守倫(1552-1612), 申應榮(1553-1623), 金長生(1545-1631) 등을 통해 牛溪成渾과 栗谷 李珣의 학통을 이어 받았다.

1612년 土禍로 스승인 趙守倫이 고문 끝에 옥사하자 문인들과 함께 시신을 거두어 장사 지내고, 1615년 洪茂績(1577-1656) 등과 함께 폐모 반대 상소를 올렸다가 削名되었다. 1617년 경기도 고양의 花田에 있는 시골집에 은거하였다가 1623년 仁祖反正 이후 산림등용 정책이 시행되면서 金集, 金埵 등과 함께 천거되어 경상도 新寧縣監에 제수되었는데, 선정을 베풀어 포상을 받았고, 1644년 경상도 대구관관으로 부임하여 향교에서 [朱子家禮]와 [心經] 등을 위유게 하고 鄉飲酒禮를 가르쳐

## 【省齋 李喆衡 編著】



【文穆祠】



【四觀亭】

풍속을 크게 교화시켰다.

이후 牛峯李氏는 여타 가문과 마찬가지로 學緣과 血緣이라는 강력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別業(別業)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인다. 李有謙의 아들인 李翬와 李翬 李翬 역시 金集과 宋浚吉, 宋時烈에게 시사 받았고, 이후 정계에서 활동하면서 西人 老論 세력의 핵심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특히 李翔의 경우 禮訟論爭과 老少分爭때 철저하게 尤菴 宋時烈을 쫓아 반대당을 맹렬히 공격하였기 때문에 南人과 少論의 論斥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고, 李翬(1629-1690) 역시 己巳換局 때 李翬와 함께 화를 당하였다. 李翬은 두 아우가 과거를 통해 관직에 나간 것과는 달리 일찍부터 과거공부를 폐하고 향리에 은거하여 학문에만 뜻을 두었다. 李翬가 山林學者로서의 길을 걷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은 그가 17세 되던 1636년에 발발한 丙子胡亂이다. 강화도가 함락될 때 仲兄인 李鎰과 두 형수가 일시에 殉節하고, 아우인 李翬가 인질로 끌려가는 경험을 하게 된 李翬은

이후 아버지인 李有謙에게 과거공부를 폐하고 愼獨齋 金集의 문하에 들어가 수학할 것을 청하여 허락받고 학문에 전념하였으며 金集이 죽은 후에는 宋時烈과 宋浚吉을 스승으로 섬겼다.

1654년(孝宗 5)에는 全義 先塋 아래 打愚村에 은거하여 서당과 정자를 짓고 강화활동에 전념하다가 1658년(孝宗 9) 39세 되던 海朴世采, 尹拯과 함께 遺逸로 천거되어 侍講院 諮議에 제수되어 1659년 벼슬에 나가 세자를 가르치게 되었다.

이후 李翬는 山林臣으로 수차례 徵召되어 조정과 향리를 오가며 禮訟과 黨爭으로 점철된 정치인생을 맞이하게 된다.

## II. 全義縣 移居와 鄉村 活動

牛峯李氏 감찰공파의 근거지는 본래 서울 향동에 있었는데 李翬의 증조부인 李之信 때 경기도 고양의 화전으로 옮겼다 그 후 대대로 화전에서 살다가 1654년 李翬가

충청도 전의로 이거하면서 고양의 花田과 全義 타우촌 두 지역에 나누어져 世居하기 시작했다. 牛峯李氏가 全義와 인연을 맺은 시기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으나 대략 李翔의 5대조인 李承健 생전사로 추측된다. 그 이유는 李承健의 배위가 조선조기부터 全義지역의 유력한 姓氏로 자리잡고 있던 安東金氏 金朴의 딸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李承健이 죽은 후 처음에는 香洞에 장사지냈다가 뒤에 妻鄉인 全義 獐項으로 이장하였다. 李承健의 묘를 이장한 시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甲子士禍 때 화를 당한 직후에 옮겨온 것으로 추정된다.

그 후 李翔의 백부인 李有敬( - 1630)이 잠시 선산이 있는 全義에서 寓居하였다.

陶菴 李穡가 지은 李有敬의 묘지에는 “李有敬이 일찍이 충청도 全義로 이사하여 살다가 뒤에 경기도 고양의 화전으로 옮겨 1630년(仁祖 30)에 세상을 떠났다”는 기록이 보인다. 그가 全義에 우거했던 것은 이 곳에 牛峯李氏 선산이 있었던 것과 처가와와의 인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李有敬은 거창신씨 좌랑 慎在(1537-1605)의 女에게 장가들었는데 慎在은 거창신씨의 全義 입향조로 그의 조부인 慎守正(1474-1520)이 中宗反正 때 天安으로 낙향하였고 1600년대 어간에 慎在이 입전한 全義로 이주한 이래 후손들이 현재의 전의면 관정리와 전동면 석곡리 일대에 거주하기 시작했고 打愚 李翔의 대표적인 제자인 慎後尹도 이 집안 출신이다. 또 李翔의 양부인 李有誠이 천안에 근거지를 둔 진주 柳씨와 혼인을 하였고, 그의 묘가 天安 子午谷에 있었으며 생부인 李有謙은 1592년 壬辰倭亂 때 아버지 李劬이 전장에서 전사한 후 편모를 따라 충청도 全義에 있는 선산 아래로 피난하였다가 5년 후인 1597년 외가가 있는 서울 남소문 등으로 돌아가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통하여 牛峯李氏가 全義지역에 정착하는 단서를 마련한 것은 李翔의 5대조인 李承健이고, 이후 그 후손들이 선산이 있는 全義지역에 잠시 우거했다 돌아가기를 반복하다가 17세기 중반 打愚 李翔이 全義로 이거하면서 본격적인 世居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李翔은 예로부터 청주 8대성 중 으뜸으로 지목되던 韓山李氏 李聖淵의 딸과 혼인하였다.

李翔은 1654년(孝宗 5) 생부인 李有謙과 형제들이 거주하는 경기도 화전을 떠나 완전히 全義로 거주지를 옮기고 이때부터 全義를 기반으로 인근의 木川, 天安, 溫陽

등지를 무대로 활동하게 된다. 李翔이 全義로 이거한 후 향촌사회에서 보여준 활동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全義에 書齋를 세우고 후학을 양성한 것이다. 그가 세운 雷巖書堂은 李翔이 죽은 후 그를 제향하는 雷巖書院(현재의 文穆祠)의 근거가 되는 곳이기도 한데, 全義縣의 북쪽 7리 雷巖 즉 벼락바위 아래에 있었으며, 尤庵 宋時烈과 같이 사귀었으므로 宋時烈이 書堂을 이름하여 “잠시 머물러 가는 집(止宿寮)”이라 했다고 전해진다. 또 李翔은 書堂 아래에 四觀亭이라는 정자를 건립하여 書堂에서 공부하는 유생들의 휴식처로 삼았는데, <동쪽으로는 雲霏山이, 남쪽으로는 雲霏山이, 서쪽으로는 甌山이, 북쪽으로는 月照山이 바라다 보이는 곳>에 정자를 세웠다가 하여 정자의 이름을 四觀亭이라 지었다.

李翔의 문하에 들어와 수업한 인물들은 대부분 全義와 그 인근지역의 선비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894년에 간행된 [全域誌]에는 慎後尹을 위시하여 慎爾初, 慎之胤, 李必茂, 李必奎, 李必興, 李泰濟, 邊禱南, 邊聖欽, 邊聖和, 洪芳, 洪勳, 權挺 13명이 李翔의 문인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외에도 [肅宗實錄]에서 확인되는 李翔의 제자로는 1694년에 李翔을 신구하는 상소를 올린 洪殷, 1695년과 1725년 李翔의 신원을 청하는 상소를 올린 徐行遠, 1702년 상소를 올린 朴新章, 1712년 상소를 올린 邊禱一 등이 李翔의 제자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두 번째로 木川의 道東書院과 全義鄉校 등을 출입하면서 이 지역 사족들과 교류하면서 鄉論을 주도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1680년 어간에 木川 道東書院의 院長을 역임하고 1682년(숙종 8) 全義鄉校 이건 시에는 [全義鄉校明倫堂序]를 지었다. 당시 鄉校와 書院은 지역의 사람들이 鄉論을 집결하는 기능을 하고 있었으므로, 山林臣으로 추앙받으면서 조정과 향촌을 오가던 李翔이 두 곳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鄉先生으로서 鄉論을 주도하는데 있어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다.

李翔이 道東書院의 院長을 지냈던 1680년도 어간은 西人이 老論과 少論으로 분립되던 시기이다.

세 번째로는 全義 및 木川지역 관련 저술활동을 들 수 있다. 李翔은 1654년(孝宗 5) 木川 伏龜亭의 重建記를 짓고, 1682년(肅宗 8) 全義鄉校 이건시 [全義鄉校明倫堂序]를 짓는 등 지역의 중대사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伏龜亭은 木川縣 동쪽 5리에 있던 정자로 1504년

(燕山君 10)에 창건되었으나 1636년(仁祖 14) 丙子胡亂으로 불타 없어졌다. 李翔은 全義와 인근 木川의 여러 사찰과 유적 등을 찾아가 글을 남기기도 하고 이 지역 인물의 行狀 및 碑文을 찬술하였다. 全義지역의 孝子 金忠烈(1585-1668)의 挽詞와 墓誌銘을 찬술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打愚 李翔은 1654년(孝宗 5) 全義에 이거한 후 서당과 정자를 짓고 講學활동에 힘써 제자들을 양성하는 한편, 당시 全義 木川 天安 稷山지역 유일한 書院이었던 道東書院의 院長을 지내면서 鄉論을 주도하였다. 또 1682년에는 全義 縣監 李相吉과 함께 全義鄉校 이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全義鄉校明倫堂序]를 짓기도 하였다. 丙子胡亂으로 불타 없어진 木川의 伏龜亭을 증건 할 때 記文을 쓴다거나, 全義 孝子 金忠烈의 挽詞와 墓誌銘을 찬술한 것을 보면 鄉村인사들과의 유대관계도 돈독히 하였다. 당시 李翔이 鄉村사회에서 교류하던 인물들은 주로 학맥이나 혼인관계를 통해 宋浚吉, 宋時烈과 연관되어 있었다. 이러한 李翔의 향촌활동이 당쟁과 깊은 관련을 가지게 된다.

### III. 政界 進出과 政治 活動

#### ① 李翔의 學脈과 交友관계

李翔은 17세기 되던 1636년 丙子胡亂이 일어나 자신의 仲兄인 李詡과 두 형수가 일시에 殉節하는 것을 본 후 과거공부를 폐지하고 慎獨齋 金集의 문하에 들어가 學文에만 전념하였다. 그리고 金集이 죽은 후에는 宋時烈과 宋浚吉을 스승으로 섬겼다. 이러한 연유로 李翔은 禮訟論爭과 老少分黨 때 스승인 宋浚吉, 宋時烈을 좇아 철저하게 西人-老論의 입장을 견지하게 되는데, 이러한 성향은 그의 부친 有謙 때부터 형성된 학맥과 교우관계에서 연원한 것으로 이해된다. 李翔의 生父인 李有謙은 16세 되던 1601년부터 趙守倫, 申應渠, 吳允謙, 金德謙 등 당대 이름난 학자들을 찾아 다니며 공부하다가 22세 되던 1607년 沙溪 金長生의 문하에 들어가 수학하면서 金集과 宋時烈, 宋浚吉 등과 인연을 맺었다. 李翔은 부친 때부터 형성된 인맥을 토대로 西人-老論계 인물들과 관계를 맺게 된다. 부친으로부터 栗谷과 成渾의 학통을 이어받았고, 이후 金長生의 아들인 金集과 宋時烈, 宋浚吉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또 그의 아우인 李翽과 李翬, 조카인 李晩成, 李晩堅 역시

宋浚吉, 宋時烈 등에게 사사받으면서 그의 가문은 학연적으로 西人-老論 세력의 핵심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李翔의 문집인 [打愚遺稿]에 수록된 서신을 통해 교류한 인물들을 살펴보면 먼저 스승으로서 宋時烈, 宋浚吉을 들 수 있는데 특히 宋時烈과 잦은 편지 왕래를 하면서 안부를 묻거나 중요한 일들을 상의했다. 그중에는 당시의 정치사안에 대한 내용들도 적지 않아 특히 1674년(肅宗 元年)甲寅禮訟에서 西人이 패한 직후 李惟泰가 全義 碑庵寺에서 석고대죄 할 때와 1675년 寧海로 유배된 이후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는 李惟泰의 己亥封事에 대한 내용이나 禮訟 등 당시 현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동문관계에 있거나 鄉村에서 함께 활동한 인물과의 서신교류가 보이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朴世采와 尹拯, 郭始微이다. 그리고 자신의 문하생인 慎後尹과 徐行遠에게 보낸 서신이 있는데, 이들은 李翔이 옥사한 후 스승의 억울함을 호소한 인물로, 慎後尹은 이 일로 극변에 유배를 당하기도 하였다. 또 慎後尹과 徐行遠은 1699년 李翔이 생전에 강학하던 雷巖書齋에 李翔을 모시는 祠宇를 건립하기도 하였다.

우병이씨 가문의 동혼 관계를 살펴 보면 12세부터 14세까지는 비교적 다양한 성씨들과 혼인관계를 맺고 있으나 李翔 본인대인 15세 이후부터는 빈번하게 혼인관계를 맺는 특정 姓氏들이 등장하고 있는 점이다. 특히 16세와 17세에 그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이런 姓氏들의 성향을 분석해 보려는 대부분 핵심적인 노론가문들로서 金長生, 宋時烈의 문인집단이라는 사실이다. 이처럼 牛峯李氏는 肅宗대 대표적 척신가문인 여흥민씨를 비롯하여 은진송씨, 남양홍씨, 안동김씨, 평산신씨, 청송심씨, 한산이씨, 해주오씨, 반남박씨, 완산이씨, 양주조씨, 함양이씨 등 서인-노론세력의 핵심이 되는 여러 姓氏들과 폭넓은 혼인관계를 맺음으로서 학문적, 정치적, 혈연적 기반을 중심으로 중앙과 향촌에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여 서로의 정치활동에 있어서 큰 지지세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② 山林으로서의 出仕와 活動

李翔은 대표적인 湖西山林의 한 사람이었다. 1658년(孝宗 9) 39세 되던 해 朴世采, 尹拯과 함께 遺逸로 천거되어 侍講院 諍議에 제수되었고, 이듬해 벼슬에 나가 世子를 가르치게 되었다. 이 때 동궁에 있던 현종이 일찍이 李翽이 아뢴 經義를 가지고 宋浚吉에게 다시

물자 宋浚吉은 李翔의 말이 맞다고 하면서 나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세자를 補益하는 책임은 가장 좋은 사람을 얻었다” 며 李翔을 칭찬하였다. 특히 宋浚吉은 顯宗이 즉위한 이후 李翔의 학문을 높이 평가하면서 조정에서도 적극적으로 李翔을 천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시 顯宗의 세자시절 스승으로서의 顯宗의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을 받으면서 士林의 領袖로 추앙받고 있던 宋浚吉의 이같은 평가와 지지는 李翔이 山林臣으로 인정받고 대우받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되었음은 말할 나위 없다.

한편 李翔도 宋浚吉이 정치적인 난관에 처해있을 때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모습을 보인다. 1660년 孝宗이 승하하자 자의대비의 服制 문제로 1차 예상이 일어나자 李翔은 상소를 올려 그의 스승인 金集이 정한 君臣들의 服制를 정할 것을 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禮訟으로 말미암아 宋時烈과 宋浚吉이 공격을 받고 물러나자 자신도 출저를 함께하여 향리로 돌아왔다. 또 權聽가 당시 禮訟으로 宋浚吉, 宋時烈과 대립하고 있던 尹璠와 尹善道를 옹호하자 즉시 상소하여 權聽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그를 멀리할 것을 청하였다.

1670년(顯宗 11) 掌筭에 제수되고 이어 1672년 執義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소를 올려 사양하고 부임하지 않았다. 당시 己亥禮訟 이후 兩宋과 許積(1610-1680)이 반목하는 가운데, 1671년(顯宗 12) 許積을 탄핵한 헌납 尹敬教(1632-1691)와 宋浚吉이 顯宗의 指斥을 받는 일이 발생하였다. 李翔은 곧 宋浚吉을 옹호하고 許積을 논핵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그는 許積이 “본래 경박하게 날뛰어 본래 좋은 선비가 아니었고, 임기응변이 능란한 간사한 자이므로 자잘한 일반 관직을 맡긴다면 취할만한 장점이 한 가지라도 없지는 않겠지만, 나라의 귀중한 자리 즉 정승의 반열에 올려 놓으면 반드시 재앙과 해독이 겹칠 것” 이라며 許積의 사람됨이 一國의 재상으로서 턱없이 부족함을 논하였다. 또 許積은 “안으로는 戚里와 宦侍와 결탁하고, 밖으로는 조정의 사대부와 결탁하고, 아래로는 시정잡배들과 결탁하고, 위로는 임금에게 아첨하여 헛된 명성을 얻었다” 고 평가하고, 許積과 宋浚吉을 한 조정에서 벼슬하게 하려는 것은 “향초와 잡초, 얼음과 솥을 한 그릇에 담고 향그런 맛이 나고 깨끗하기를 바랍과 다르지 않다” 고 하면서 직접적이고 강경한 언사로 許積을 논핵하였다. 이 상소가 들어가자 顯宗이 진노해서 삭탈관직을 명하니, 兩司의 諸臣들이 함께 명을 취소할 것을 청하는 램가 백여 건이었고, 金壽恒 역시 上劄하여 李翔을 비호하였으나 들이킬 수가 없었다.

이 사건이 있은 직후 宋浚吉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李翔은 宋浚吉의 挽詞와 祭文을 지어 宋浚吉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이후 곧 복직되었으나 1674년(肅宗 원년) 顯宗이 죽고 다시 복제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자 宋時烈등과 함께 大功說(9개월론)을 주장하다 파직당하였고, 이듬해 黨으로써 사사되어 禮를 어지럽혔다는 죄명으로 영남 寧海에 유배되어 6년간 유배생활을 하였다. 61세 되던 1680년(肅宗 6) 許積의 서자인 許堅의 역모사건으로 許積과 尹璠가 사사되고 서인이 집권하게 되자 유배에서 풀려나 향리로 돌아왔다. 金壽恒의 천거로 재등용되어 1681년에 司諫이 되고, 그 뒤 刑曹參議, 漢城右尹, 漢城左尹, 大司憲 등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사양하고 나가지 않았다.

1684년(肅宗 10) 宋時烈과 尹拯의 대립으로 西人 세력이 老論과 少論으로 분당되기에 李翔은 스승인 宋時烈을 좇아 철저히 老論의 입장에 서서 少論을 배척하였다. 李翔의 정계활동은 宋浚吉과 宋時烈의 천거와 지지도로 시작되었고, 이후 정치적인 진퇴 또한 철저히 宋浚吉과 宋時烈과 함께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두 스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변호하고 구명하는데 힘썼기 때문에 반대파들로부터 맹렬한 비난을 받았다. [조선왕조실록] 에는 李翔이 “본래 용렬한 사람이나 사는 곳이 兩宋이 사는 곳과 가까웠기 때문에 자주 찾아가 인사를 해 그들의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是非를 의논할 때마다 한결같이 兩宋을 따랐다” 는 기록이나 두 宋氏가 키워준 은혜를 입어 헌부의 亞長이 되었다는 기록이 자주 등장한다. 또 당시 그의 아우인 李翺과 李璿이 문과에 급제한 후 조정의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세력을 떨치고 있었던 점 또한 李翔이 무능하고 용렬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의 힘으로 헛된 명성과 지위를 얻었음을 강조하는 근거로 자주 제시되고 있다.

③ 黨爭의 深化와 李翔의 獄事

李翔은 1688(肅宗 14) 천안에 사는 먼 친척 柳斗星의 음행사건을 고발했다가 이듬해인 1689년(肅宗 15) 己巳換局으로 南人이 득세하자 도리어 이 사건을 빌미로 하옥되고 1690년(肅宗 16) 정월 마침내 옥중에서 죽게 된다.

李翔은 명목상 “증인을 교사하고 재물을 탐하였다” 는 죄명으로 옥중에서 죽었지만, 그의 죽음은 명백히 老論과 少論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당시 공홍감사로 사건을 담당하였던 尹以道도 후에 “烝母에 관한 柳斗星의 옥사에서 모든 사람들이 供辭에 李翔을 끌어들었으나 李翔과는

무관하였고, 설혹 李翔이 관계된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山野의 사람인 지라 세상 물정에 어두워 혐의스러운 일을 멀리하지 못한 소치였으며, 유두임은 李翔과 親屬사이로 어미를 포함한 죄에 걸려 죽을 지경에 이르자 李翔의 이름을 빌려 기필코 살기를 꾀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 설령 李翔에게 과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용서해야 할 점이 없지 않았는데, 너무나도 심하게 시기하고 미워하여 죄를 참혹하게 다스렸기에, 李翔을 애처롭게 여겨 陳白하고 싶었지만 길이 없었다.” 라고 하면서 李翔의 옥사가 지나치게 가혹했음을 말하였다. 또 肅宗 자신도 “ 당시 사람(南人)들이 기회를 타서 원한을 풀었던 터이라 참혹하고 각박한 바가 없지 않다” 고 인정했을 정도로 명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李翔의 일이 오랫동안 朝家의 禁畵으로 묶여 있었고, 1695년에 복관되었다가 바로 취소된 것은 李翔의 獄事가 政局의 변화와는 무관한 단순한 誣告 사건으로 치부되어 오랫동안 복관되지 못하고 논의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과연 李翔이 증인인 柳斗星을 사주하여 柳斗星에게 죄를 씌운 것이냐 하는 문제이고, 두 번째는 柳斗星이 죽으면 그 재산이 李翔에게 넘어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肅宗 15년 4월 18일 柳斗星은 供辭에서 李翔이 자신을 시켜 일을 꾸민 것이라고 자백하였다. 이에 두 사람의 면질이 있었으나, 李翔은 柳斗星이 어미를 고소한 律에 걸려 살아날 길이 없고 마침 자신이 억울한 誣告를 당해 옥에 갇혀 있으므로 柳斗星이 자신을 끌어들이 살기를 도모하는 것이라면서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였다.

그런데 [속중실록] 1695년 5월 5일 기사를 보면, “기사년에 흥당들이 柳斗星의 獄事를 李翔을 誣陷하는 奇貨로 삼아 없는 죄를 매우 급하게 꾸렸으며, 柳斗星은 심지어 李翔의 教誘를 받았다고 供辭를 바치기 까지 하였으니, 대개 이렇게 하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러다가 사형을 당하게 되자 이에 큰소리로 외치기를” 꼭 죽을 줄 알았더라면 내가 하필 무고한 李수승(李翔)에게 죄를 돌렸겠는가” 라고 하였고 기록하고 있어 柳斗星이 자신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 李翔에게 죄를 돌린 것을 인정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당시 공홍감사로 李翔의 옥사를 참혹하게 다스렸다 하여 노론들의 비난을 받았던 尹以道도 후에는 “柳斗星은 李翔과 親屬사이로 어미를 포함한 죄에 걸려 죽을

지경에 이르자 李翔의 이름을 빌려 기필코 살기를 꾀한 것” 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당시 사람들도 이 사건을 유두임의 무고였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쟁점이 된 것은 柳斗星이 죽으면 과연 李翔이 그 재산을 차지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柳斗星의 친족인 柳斗寅은 屍狀을 올려

① 玄女(유두성의 계모)는 柳營遇의 증손부이고 李翔은 柳營遇의 외손이기 때문에 柳斗星을 죽이고 그의 奉祀田과 庄屋, 奴婢를 탈취하기 위해 李翔이 일을 획책한 것이다.

② 獄事가 일어나자 도신과 추관은 일체 사실을 조사하지도 않았는데, 조정을 속이기 위해 먼저 상소를 올리고 도신과 추관에게 글을 보내 축탁하였다.

③ 柳斗星의 집에서 전도와 장옥을 파는 것을 급하게 하고 은밀히 사람을 보내어 조사 기록하게 하였다. 라고 하면서 李翔을 고변하였다. 이에 대하여 李翔은

① 柳斗星은 李翔의 養外祖의 養玄孫이다. 柳斗星이 죄를 받아 죽더라도 그의 형제가 다섯명이나 되고, 종족 가운데도 입후할 수 있는 자가 또 10여명이나 되는데 어찌 외손에게 제사를 주관하게 할 수 있겠는가. 또 외손에게 주관하게 한다 해도 외손이 한둘이 아닌데, 어찌 親生을 버리고 養外孫을 취하다가 承重하게 하겠는가.

② 獄事의 成不成은 나에게 별 상관없다. 獄事가 지연된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삼가 죄인을 講討해야 한다는 義에 입각하여 상소문의 끝에 간략히 진술한 것으로 이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같이 느끼는 통분함에서 나온 처사였다. 도신과 추관에게 글을 보낸 것도 상소문에서 진달한 내용이 불과하다. 그리고 獄事가 일어난 것은 지난해 2월이고 상소를 올린 것은 5월이어서 이미 獄事가 完結되어 추관이 柳斗星을 처형하기를 청했던 때였으니 전혀 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다.

③ 자신이 柳斗星의 집에서 “전도를 파는 것을 급하였다고 했는데, 도대체 사려는 자는 누구였고, 팔려는 자는 누구였는가, 조사하여 기록할 적에 누구를 보냈는가, 柳斗寅에게 질문해서 분별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다. 柳斗星이 죽은 후 그 재산이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하는 상속의 문제는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논의이다. 柳斗星의 재산이 李翔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해지면, 李翔이 柳斗星을 사주하였다는



내용도 자연 그 동기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차후 李翔의 복관에 관한 논의에서도 李翔이 柳斗星의 재산을 탐했는가 아닌가는 중요한 쟁점이 된다.

논론의 입장에서 쓰여진 (속종실록)에 실린 李翔의 추記에는 “대개 李翔의 獄事는 음란한 자취가 남자하므로 湖中 사람들이 내놓고 전하여 말하기를, 이연강이 관찰사로 있을 때 본디 법으로 다스렸던 것인데 李翔의 소가 나오자 李翔을 모함하기에 바빠서 그 옥안을 뒤집었으니, 南黨은 본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튼바 少輩의 심술이 더욱 놀랍고 통탄스럽다”고 하여 李翔의 일이 남인과 소인들의 모함으로 인해 일어난 것임을 단언하고 있다.

반면 소론의 입장에서 쓰여진 (속종실록보결정오)에서는 “淫獄을 밝힌 것은 그 사실이 어떠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擧措가 방자하고 情實이 드러나서 그 마음은 길가는 사람들도 아는 바”라면서 자세한 언급을 피하고 있어 李翔의 옥사가 성립되는데 있어서 반대 당파의 인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무리수가 있었다는 의혹을 갖게 한다.

그리하여 李翔의 獄事는 政局의 변화와는 무관하게 단순한 誣告사건으로 치부되어 오랫동안 복관되지 못하고 논의 자체가 금지되었다. 이는 李翔의 일이 朝家の 禁畵이라 표현되는 점, 1695년 李翔이 일시에 복관되었다가 朴泰尙의 상소로 복관이 취소되는 일에서도 알 수 있다. 이때 肅宗은 朴泰尙의 상소에 대한 批答에서 말하기를 “작년 更張 초에 전일에 형벌을 입었던 여러 신하들을 모두 복관하였는데, 그들은 소인들이 올바른 사람을 해치는 데에 관련되었을 뿐이어서 지극히 원통하지 않은 이가 없었기 때문에, 궤히 公議를 펴준 것이었다. 그러나 李師命과 李翔의 獄事에 대해서는 내 마음에 좋지 불쾌한 점이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儒臣이 그 일을 진달할 무렵 마침 雨災를 걱정하는 날이었으므로 허락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시 생각하니 李翔의 죄는 용서할 도리가 없는데도 갑자기 나의 전일의 견해를 변경하였으니, 너의 상소문 가운데 “스스로 통괄하지 않는다”고 한 말은 참으로 나의 병통을 찌른 것이다. 이 두 사람의 복관의 명을 아울러 환수한다.”고 하였다. 李師命 李翔의 일을 종시 마음에 불쾌한 점이 있지만, 雨災를 걱정하는 시기이므로 마지못해 허락했으므로 복관을 취소한 것이다. 이는 李翔과 李師命의 복관이 1694년 甲戌換局으로 복관된 다른 신하들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물론 李翔은 1690년 명목상 재물을 탐해 柳斗星을 무고하고 柳斗星을 교사한 죄로 옥중에서 죽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명백히 老論과 少論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己巳換局이라는 정치적인 사건에 의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李翔의 죽음이 정국의 변화와는 무관하게 단순한 誣告사건으로 치부되어 오랫동안 복관되지 못하고 논의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던 것은 참으로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 IV. 死後의 追崇活動

李翔은 철저히 17세기 당파간의 대립이 극화되던 시기에 당쟁의 중심에서 활동했던 인물이었고, 그의 죽음 역시 당쟁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이후의 추송활동 또한 조정의 권력을 잡은 세력이 누구냐에 따라 복관이 이루어졌다 취소되고, 서원이 건립되었다 철회되는 등 복잡한 양상을 보이면서 李翔이 죽어서까지도 당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打遇 李翔에 대한 추송활동은 李翔이 獄死한 1690년부터 9세손인 李鼎九에 의해 신도비가 건립되는 1895년까지 대략 200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크게 李翔의 복관추진, 서원의 건립과 문집의 간행, 비문의 찬술, 贈諡, 신도비의 건립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 1. 복관운동과 서원건립

李翔의 복관 운동은 1690년 그가 獄死한 직후부터 꾸준히 있어 왔다. 그러나 이 시기는 노소론의 대립이 극에 달하면서 가장 치열했던 시기로 중앙에서 소론과 남인이 정권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복관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李翔의 복관을 청하는 움직임은 甲戌換局으로 노론이 정권을 장악하는 1694년을 전후하여 나타나고 있다. 1694년(肅宗 20) 5월 30일 충청도 진사 洪蔭 등이 李翔을 伸救하는 상소를 올렸고, 그 해 11월 12일 장흥 유학 金智가 李翔의 원통함을 아뢰는 상소를 올렸다. 또 1695년(肅宗 21) 5월 5일 목천 유생 徐行遠이 스승 李翔의 伸冤을 청하였지만 모두 되돌려졌다. 그러다가 5월 14일 부교리 閔鎭後가 경연에서 李翔의 억울함을 씻어줄 것을 청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특별으로 복관이 이루어지게 된다. 당시 閔鎭後가 경연에서 “故 大司憲 李翔은 죄명이 무거운데도 朝家の 禁畵도 또한 엄중하기 때문에 朝臣중에 더러 그가 원통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히 말하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李翔은 평생을 성실하고 소박하게

산 사람으로서, 결코 이와 같은 음험하고 교묘한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억울한 정상이 있다면 마땅히 곧바로 깨닫기 쉬워 주십시오”라고 아뢰자 왕이 여러 대신들에게 하문하였는데, 영의정 남구만은 그 옥사의 실정을 상세히 알지 못하여 감히 결정하여 말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한걸음 뒤로 물러나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반면 좌의정 柳尙運은 자신이 일찍이 李翔의 집과 가까운 곳에 살았는데, 동리 사람들도 또한 이것을 원통하다고 말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李翔을 변호하고 나섰다. 결국 閔鎭後와 柳尙運의 노력에 힘입어 李翔은 특별으로 복관되었다. 그러나 이때의 복관은 그의 혐의가 완전히 풀렸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의 특별사면과 같은 의미가 더 크다. 이는 閔鎭後가 李翔이 罪死한 원통함을 아뢰고 昭雪을 더할 것을 청하자, 肅宗이 “관계된 바가 무거우나 가뭇을 걱정하는 시기에 여러 신하들이 그 원통함을 말하므로 특별히 복관한다”고 답하는 실록의 기록을 보면 그러한 의도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위에서 보듯이 1695년 李翔의 복관을 적극 추진하고 나선 인물은 閔鎭후였다.

朝家の 禁畵에도 불구하고 閔鎭後가 李翔을 복관시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그가 李翔과 함께 宋時烈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던 사실과, 禮訟과 당파간의 대립이 치열하던 조정에서 함께 西人老論계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활동했다는 점이 무엇보다 가장 큰 요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외에도 그와 李翔과의 姻戚관계도 閔鎭後가 李翔의 복관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李翔의 복관은 결코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바로 다음날인 5월 15일 부수찬 閔震炯이 상소하여 李翔을 복관시키라는 명령을 도로 거둘 것을 청한 것이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肅宗은 엄한 批答을 내려 閔震炯의 상소를 물리쳤다.

그러나 5월 27일 좌참찬 朴泰尙이 李翔의 복관은 당파가 매개가 되어 경솔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복관을 취소시킬 것을 강력하게 청하자 결국 李翔의 복관을 취소시키라는 명령을 내리기에 이른다. 이에 대하여 승지 尹世紀 崔商翼 등이 급방 복관시켰다가 곧바로 다시 철회하는 것은 擧措가 전도된 것이라면서 반대하였지만 결국 이들과 推考당하고 말았다. 그 후로도 李翔의 신원을 청하는 움직임이 꾸준히 보인다. 1697년

(肅宗 23) 1월 25일에는 지평 李晩成이 상소하여 그의 숙부 李翔의 원통함을 상소하였다가 즉시 遞差되었다. 또 1702년(肅宗 28) 7월 3일 충청도 유학 朴新章 등이 상소하여 그 스승 李翔의 억울함을 풀어 주기를 청하였으나 이 상소 역시 돌려주도록 명하였다.

이처럼 조정에서 老論과 少論이 李翔의 복관문제를 두고 대립하면서 한 차례 복관이 이루어졌다가 취소되고 이후의 복관 청원이 번번이 실패하는 가운데 향촌 사회에서는 李翔을 제향하는 사우를 창건하는 등 보다 구체적으로 李翔에 대한 追崇의 움직임이 보인다.

1699년(肅宗 25) 李翔의 문하생 愼後尹 徐行遠 등은 근방의 여러 선비들을 규합하여 향문을 일으키고, 李翔이 생전에 제자들을 가르치던 뇌암서당에 사우를 창건하고 李翔을 제향하였으니, 이것이 뇌암서원의 시초이다. 뇌암서원은 비록 국가로부터 賜額을 받은 서원은 아니었지만, 조선시대 全義지역에 있었던 유일한 서원으로 그 지역 사족활동의 중심체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창건후 7년 만인 1706년(肅宗 32) 4월에 지평 鄭栻(1664-1719)이 상소를 올려 全義에 있는 李翔의 사우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鄭栻은 “全義縣에 李翔을 위하여 祠堂을 세운 자가 있다고 합니다. 李翔은 罪名이 狼藉한데 이에 감히 畵교를 행하는 것은, 제사 지내는 일의 분수에 넘치는 일과 斯文의 욕을 끼치는 일은 우선의 논할 겨를도 없으며, 나라의 기강이 점점 쇠퇴해지고 公議가 엄격치 못한 것이 이보다 심함이 없으니, 청컨대 빨리 철회하도록 명하고 맨 먼저 창건을 주장한 유생은 本道로 하여금 조사하여 科罪하소서”라고 하면서 사우를 철회하는 한편 창건을 주장했던 유생들까지도 처벌할 것을 청하였다. 이 상소가 올라오자 조정에서는 충청도 관찰사에게 진상을 조사하여 올리도록 하였는데, 당시 관찰사였던 朴泰恒이 畵를 올려 李翔의 사우가 비록 位版없이 향사를 거행하고 있지만 이미 政堂 3칸을 갖추고 있어 서원과 다를 바가 없으니 이를 철회하고 창건을 주도한 愼後尹을 아산현에 1년간 징배시킬 것을 청하였다.

1695년에 있었던 李翔의 복관은 곧바로 취소되고 李翔의 사우 창건 7년만에 철회되었으나, 李翔의 복관을 위한 움직임은 이후에도 꾸준히 계속되었다. 1708년(肅宗 34) 李翔의 사우가 철회된지 2개월만에 다시 사우를 설립할 것을 발의한 유생을 처벌해야 한다는 상소가 있었고, 1710년(肅宗 36)

에는 李翔의 손자 李紳이 복을 쳐서 李翔의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이때 형조판서 俞得一이 李翔을 伸救하는 말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肅宗은 “李翔은 범한 바가 매우 무거운데, 지난번에 李紳이 감히 시기를 틈타 擊鼓하여 요행을 바란 것은 매우 놀랄만한 일이므로, 이미 시행하지 말도록 하였다. 그런데 그때 형관 俞得一이 감히 時人에게 아첨하여 기쁘게 하려는 계책을 내어, 대신에게 의논할 것을 청하기에 이르렀으니, 지극히 無狀하다. 이 사람이 불췌아 아첨하는 것은 특별히 이 한가지 일뿐만이 아니니, 족히 말할 것도 없으나, 만약 엄중하게 금지하지 않는다면, 李師命 洪致祥 등의 복판을 바라는 자들이 장차 반드시 잇달아 일어날 것이니, 俞得一을 우선 파직하고 서용하지 말도록 하라” 면서 엄하게 하교하였다. 李翔의 신원 자체에 대하여 아예 입에 담지도 못하도록 췌기를 박은 것이다. 그 후 1712년(肅宗 38) 전현감 邊震一 등이 상소를 올려 스승인 李翔의 신원을 청하였으나 이 또한 배척되었다.

李翔의 복판이 다시 이루어진 것은 1717년의 일이었다. 이때 肅宗은 온양온천에 행차하여 도내 유생들에게 求言의 유지를 내렸는데, 이에 충청도 유생 鄭東章 등은 時政에 대해 논하는 상소 끝에 “李翔은 일찍부터 학문에 뜻을 두었으므로, 여러 조정에서 성의를 다하여 旌招하기까지 하였으나, 불행히 원한을 갚으려는 사람이 시기를 틈타 構陷하였으므로, 마침내 옥중에서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오히려 차마 말할 수 있겠습니까? 先正臣 宋時烈이 남에게 보낸 글월 가운데에 李翔이 당초에 상소한 것은 못된 일을 미워하고 풍속을 바로 잡으려는데에서 나왔다고까지 하였는데, 이것은 百世의 正論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故 相臣 柳尙運이 일찍이 경연 중에서 財利를 탐한다는 비방은 아주 원통한 것이라고 대답하였는데, 이것은 진실로 한 道內的 公論입니다. 바라건데, 성상께서는 특별히 伸寃하도록 명하여 끝내 예우하는 은혜를 베푸소서” 라고 하면서 李翔의 억울함을 아뢰고 특별히 伸寃해 줄 것을 청하였다. 이들은 1717년 왕의 온양온천 행궁을 기회로 이같은 시도를 하였고, 이들의 시도는 성공을 거두어 肅宗은 이를 廟堂에 명하여 품쳐지게 하였다. 이에 도제조 김창집, 제조 閔鎭後, 병조판서 이관명 등이 한결같이 李翔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복판시키는 것이 가함을 아뢰자 肅宗은 “일찍이 전에도 李翔을 위하여 伸辦한 자가 한 둘이 아니었는데, 유생의 상소가

마침 本道에 거동하여 와 있을 때에 이르렀으니, 지극히 억울한 것이 아니면 이와 같지는 않을 듯하다. 柳尙運도 李翔을 사사롭게 비호할 사람이 아니고, 또 李翔이 전에 여러 번 入侍하였는데, 그 사람됨을 보면 반드시 이런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道內的 억울한 자를 疏釋하는 날을 당하여 이미 그 억울함을 알았으면 신변하는 일은 持難할 필요가 없을 것이니, 특별히 복판하도록 하라.” 라 하고, 이어서 致祭하게 하였다. 그러나 景宗의 즉위와 함께 1721년 辛壬土禍가 발생하여 少論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李翔의 관작은 또다시 추락되었다.

1690년 李翔이 죽은 직후부터 1721년 辛壬土禍까지는 조정에서 老論과 少論이 대립하는 가운데 李翔의 관작이 복구되었다가 취소되고, 서원이 건립되었다가 훼손되는 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었던 반면, 1725년(英祖 1) 이후에는 老論의 집권 하에 李翔의 서원이 재건되고, 遺稿가 간행되는 한편,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시호를 받는 등 추승활동이 무난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1725년 英祖는 李翔의 관작을 완전히 복구시키는 한편 제관을 보내 치제토록 하였다. 이듬해인 1726년(英祖 2)에는 從孫인 陶庵 李緯가 洪禹傳의 行狀에 追記하면서 李翔에 대한 追崇활동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처럼 1725년에는 李翔과 함께 변을 당한 李翊과 辛壬土禍에 변을 당한 李晚成, 李翔이 죽을 당시 스승을 위해 변호하다 함께 죽임을 당하거나 유배된 愼後尹과 洪芳을 제항함으로써 당시 李翔의 죽음이 土禍로 인한 억울한 것이었고, 스승을 위해 죽거나 유배된 제자들의 행적을 節義로 규정하여 李翔을 더욱 추앙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愼後尹은 1699년 스승을 제항하는 사투를 건립하고 20여년 후에는 자신도 그 서원에 제항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흥미롭다.

그 후 1776년(正祖 원년) 뇌암 서원에 참찬 李緯와 洪啓禧(1703-1771)를 추배하면서 賜額書院으로서의 변모를 꾀하는 움직임도 보인다. 충청도 유학 성태주 등이 이러한 내용의 상소를 올렸는데, 이로 인해 正祖의 노여움을 사 소두인 성태주가 강계부로 귀양을 갔고, 이후 뇌암서원은 1865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손되기까지 계속해서 미사역 서원으로 남게 되었다.

2. 文集의 발간과 追贈 및 贈諡

李翔이 죽은 후 70여년이 지난 1761년(영조 19)에는 외손인 洪啓禧에

의해 遺稿가 간행되었다. 조선시대 가문이나 사족들에게 있어 자신의 선조나 스승의 문집을 간행하는 일은 서원, 사우의 건립과 함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추승 작업이었다.

李翔의 遺稿를 간행하기 위한 시도는 그 이전부터 있었다. 1695년(肅宗 21) 李翔이 특명으로 복판되고, 1699년 全義에 李翔을 제항하는 사투가 세워지는 등 일련의 추승활동에 이어 1721년(경종 1)에는 李翔의 사위인 충청도 관찰사 洪禹傳이 行狀을 찬하면서 그 단초가 마련되었다. 이는 1695년 閔鎭後의 진언으로 李翔을 복판시켰다가 곧바로 朴泰尙 등의 상소로 복판을 취소하고, 1717년(肅宗 43) 肅宗이 온양에 행차하였을 때 충청도 유생 鄭東章 등의 상소로 특별히 복판하고 致祭한 당시의 상황과 맞물려 이루어졌던 것이다. 1721년 李翔의 사위인 洪禹傳은 충청도관찰사로 부임하여 흠어진 李翔의 詩文들을 모으고 行狀을 찬술하는 등 李翔의 학문과 행적을 알리기 위한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작업은 여의치 않게 돌아갔던 것 같다. 洪禹傳이 지은 李翔의 行狀과 洪啓禧가 지은 跋文의 기록을 보면, “평소 저술이 대부분 禍變으로 散逸되었는데 이제 겨우 흠어진 遺稿 약간 편을 수습해 家藏해 두었다. 그러나 평소 知人들에게서 얻은 詩文과 편지가 너무 적어 卷절을 이루지 못하였다.”

“기사와 경오의 환난으로 선생께서 미처 嗣子를 세우지 못하였는데, 서자 2인과 문인 1인이 모두 형틀에서 죽으니, 집에 간수했던 저술이 몽땅 쓸어버린 듯이 남은 것이 없어졌다. 편지와 詩文을 평소 아는 친지들에게서 구했지만, 거의 없어져서 1권의 책도 만들 수가 없었으니, 선비들간에 서 글짜를 여겼었다.” 라고 하여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李翔의 詩文들이 대부분 몰수되고 散逸되어 집안에 전해지는 遺稿가 거의 없었고, 수집한 遺稿가 문집으로 엮기에는 매우 적어 결국 문집을 발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1689년 李翔이 증인들을 교사하여 먼 친척인 柳斗星을 포함하고 그 재산을 가로 채려했다는 죄목으로 옥에 갇혔다가 이듬해 정월에 세상을 떠나는 과정에서 그의 서자인 晚初와 晚顯도 杖殺되었고, 노비 1명도 죽었다. 또 막내 아우인 李翊도 1689년 長興府로 귀양가서 배소에서 죽었고, 바로 아래 동생이었던 李翹은 1688년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李翔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이 모두 경기도 고양을

세거지로 삼고 있었고, 李翔의 아들들이 모두 같이 죽었기 때문에 全義에는 그의 후손들이 남아 있지 않았다.

또 李翔은 죽을 당시 미처 嗣子를 세우지 못하였다. 옥중에서 죽은 직후 먼 친척인 李晚慶(1627-1690)이 그의 뒤를 잇게 되는데, 그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李翔의 저술이 책 1권도 채 펴낼 수 없을 만큼 적었던 사정이 이례가 같 만하다. 李翔의 후사로 입후된 李晚慶은 李翔과의 나이 차가 불과 7년 밖에 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나마 李翔이 죽은지 3달이 갓 지난 1690년 4월 22일에 죽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李翔의 후사로 이은 인물은 李晚慶보다는 李晚慶의 장남인 李紳(1656-1713)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인데, 문집이 간행되는 과정을 보면 李紳과 그 아우 李續(1658-1711) 또한 李翔의 저술들을 모을만한 여건은 되지 못했던 것 같다. 더욱이 李翔의 高第라 일컬어지던 愼後尹과 洪芳도 李翔이 옥에 갇힌 이후 그를 구명하다가 洪芳은 형벌을 받다가 죽고, 愼後尹은 극변으로 유배당하는 등 그 화가 가솔들은 물론 제자들에게까지 확대되었다. 이는 李翔이 죽은 후 風飛電散된 집안을 수습하고 편지나 시문 등 李翔의 저술들을 수합하여 보관할 만한 인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분위기가 그러한 여건도 조성되지 못하였음을 보여 준다.

그 후 1725년 英祖의 즉위와 함께 李翔의 관작이 완전히 회복되고, 이듬해인 1726년(영조 2) 從孫인 陶庵 李緯가 洪禹傳의 行狀에 追記를 하면서 李翔의 문집을 간행하기 위한 기초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보다 본격적인 문집발간 작업이 이루어진 것은 1740년 대 이후의 일이다. 1740년(英祖 16) 李緯는 李翔의 묘지와 遺事를 撰述하였고, 각처에 산재해 있던 李翔의 遺稿를 수집하였다. 그는 1743년(英祖 19)까지 3년여에 걸쳐 [政院日記]와 역대 실록에서 李翔의 疏와 獻議를 베껴냈고, 李翔의 知人들을 찾아다니며 詩文을 수집하여 문집을 간행할 자료들을 마련하였다. 李緯는 자신이 직접 [政院日記]와 역대 실록에서 발췌한 李翔의 疏와 獻議에 예전부터 洪禹傳이 모아 놓았던 家藏遺稿를 합쳐서 詩賦, 疏議, 書牘과 雜著 총 5권에 부록 1권으로 엮은 뒤 발문까지 지어 완벽하게 준비작업을 마쳤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문집을 간행하지는 못하고, 자신의 문인이자 李翔의 외손인 洪啓禧에게 맡겼고, 洪啓禧는 李緯가 편찬한

定稿本 6권을 받아 보관하다가 18년이 지난 1761년(英祖 37)에 야 비로소 藝閣活字로 인형하여 수십 본을 찍어 냈다.

1761년 遺稿 발간 이후 李翔은 1788년(正祖 12)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1813년(純祖 13) 文穆이라는 시호를 하사받았다. 1831년(純祖 31) 신도비를 세우기 위해 宋時烈的 후손인 宋穉圭에게 신도비문을 받았고, 1895년(高宗 32)에 이르러 李翔의 후손인 李鼎九가 전의면 관정리 大林洞 묘소 입구에 신도비를 세우면서 李翔에 대한 추숭활동은 일단락된다.

### V. 맺음말

李翔은 1620년(光海君 12)에 단해당 李有謙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 백부인 李有成에 出系하였다. 그의 가문은 甲子士禍에 화를 당한 5대조 李承健을 필두로 하여 그의 증조부인 李之行, 李之信, 李之忠을 거치면서 사족가문으로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고, 조부인 李劫이 임진왜란 때 의병을 모아 적과 대적하던 중 流彈에 맞아 전사하고, 부친인 李有謙은

병자호란 때 의병을 모집하여 서울 광나루를 지키다가 강화도 함락 소식을 듣고 의병을 해산하는 등 忠을 실천하였으며, 강화도가 함락될 때 仲兄인 李詔과 부인 同福吳씨, 큰형인 李詔의 부인 商山金씨 3인이 자결하여 명정을 받음으로써 忠節 家門으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또 李有謙과 李翔이 兩代에 걸쳐 山林으로 천거되어 당시 사족들의 重望을 받았고, 李翔의 아우인 李翹과 李翊, 조카인 李晩成, 李晩堅이 모두 文科를 거쳐 조정의 요직에 오르면서 조선후기 명분과 의리를 중시하던 사회분위기 속에서 권력과 명예를 두루 갖춘 명문가로서 입지를 확보하였다.

또 金集, 宋時烈, 宋浚吉의 문하를 출입하면서 형성된 학맥과 인맥은 李翔의 학문적, 정치적 성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肅宗대 대표적인 척신 가문인 여흥민씨를 비롯하여 은진송씨, 광산김씨, 평산신씨, 남양홍씨, 해주오씨, 한산이씨, 반남박씨, 양주조씨, 함양여씨 등 西人 老論 세력의 핵심이 되는 여러성씨들과의 중첩된 혼인관계를 통하여 중앙정계는 물론이고 향촌사회에서도 그의 입지는 더욱 견고해졌다.

李翔은 이러한 가문적 배경과 학맥, 인맥을 바탕으로 1658년(孝宗 9) 山林으로 천거되어 정계에 진출하여 禮訟과 老少분당으로 당파간 대립이 극에 달했던 시기에 철저하게 西人-老論으로서의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南人과 少論의 원한을 샀으며, 결국 1690년 己巳換局 때 옥중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다.

그의 사후 복관 및 추숭활동 또한 철저하게 중앙 정계에서의 권력의 浮沈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1690년 그가 옥중에서 죽은 직후부터 문인과 후손들에 의해 그의 신원운동이 계속 있어왔고, 1694년 甲戌換局으로 老論이 집권하면서 李翔의 관작이 복관되고, 1699년 全義에는 그를 제사하는 사위가 세워졌다.

그러나 老少論의 대립속에서 李翔의 복관은 곧 취소되었고, 사후 또한 건립 7년만에 훼손되었다.

1717년 肅宗이 온양 온천에 행차한 것을 기회로 특별히 복관되고 치제하도록 하였지만, 곧이어 일어난 辛壬士禍로 少論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李翔의 관작은 또다시 추락되었다. 결국 1725년(英祖 1)

老論에 의한 일당전제정치가 시작되면서부터 완전하게 복관되었고, 이후 1761년 문집발간, 1788년(正祖 12) 이조판서 追贈, 1813년(순조 13) 贈諡, 1831년(순조 31) 신도비문 찬술 등 순조로운 추숭활동이 이루어 지고 있다.

이처럼 李翔은 생전에 당쟁의 한복판에서 활동하였고, 사후의 추숭활동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당쟁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인다. 위와 같이 당쟁기에 활약하던 서인-노론계의 새로운 인물인 打遇 李翔을 주목하고 그의 가계와 학맥, 교우관계, 혼인관계 등으로 형성된 인맥과 이를 토대로 한 중앙과 향촌에서의 李翔의 활동 등을 살펴 보았다.

이는 조선후기 우리 선조이신 타우 이상의 생애를 통해서 당시의 학맥, 인맥, 정치,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영락정, 학천정의 역사』

### 【穎樂亭의 歷史】

상주(尙州)에서 문경(聞慶)으로 이거(移居)하신 13세 휘기(諱琪)(號 退陰)의 配位 商山金氏의 묘소(墓所) 齊室로서 聞慶市 加恩邑 城踰里 茅亭山下에 있다.

이 穎樂亭(영락정)에 對하여는 23세 諱萬用公(1839-1915)께서 지으신 直養齋集에 穎樂亭記가 있고 24세의 諱寅九公(1852-?)께서 찬(撰)하신 穎樂亭記가 오늘날 傳하여 오고 있다.

또한 聞慶郡에서 편찬(編纂)한 聞慶郡誌에도 穎樂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紹界하고 있다.

加恩邑 城踰里에 있으니 參奉을 지내신 牛峯人 李璣가 서울로부터 가운을 성유리로 이사하여 푸른 산기슭에다 草家 亭子를 지으셨는데 퇴락(頽落)한지 이미 오래되어 그子孫들이 옛 터전을 다시 닦고서 새로 亭子를 지어 先祖를 추모(追慕)하는 場所로 삼고 있다. (문경군지 1982, p.114)고 하였고 같은 문경군지에 退陰公(諱기)의 11代孫 되시는 寅九(字 克燁)公께서 찬(撰)하신 영락정기가 있는데 대략 다음과 같다.

『우리 先祖 參奉公께서 서울로부터 尙州로 오셨다가 다시 聞慶으로 옮겨서 가운의 서쪽 穎江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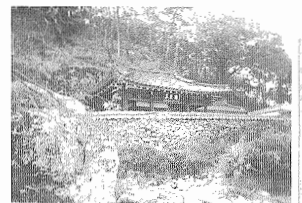
에다 몇間되는 草家를 지으시고 移居하시었는데 그로부터 몇대가 지나서 護軍公의 時代에 이르러서 族先祖이신 일휴정공(逸休亭公) 숙종조우의정(肅宗朝右議政, 1628-1688)께서 영남안찰사(嶺南按察使)로 嶺南地方을 순무(巡撫)하실때에 잠시 살피시며 이 亭子에서 쉬시었을 때 親族間의 情을 두텁게 한 일이 있었고 그후에 다시 몇대가 지나서 處士公(19世 諱蘊字 景明, 肅宗辛巳, 1701-1750 出入 陶庵先生門)의 代에 도암선생(陶庵先生)께서 鶴泉亭에서 강학(講學)하실때에 유숙(留宿)하시었는데 그때에 읊으신 동근심탄지시(同根沈嘆之詩)의 유복(遺馥)이 아직까지 남아 있으나 그때로부터 이미 여러대가 경과하였고 文獻도 전혀 없어서 이 亭子가 언제 훼손(毀廢)되었는지 알수 없이 유허(遺墟)만 홀로 전하여지고 있어서 아무도 사는 사립없이 거칠고 雜草만 우거진채로 있어서 지나는 科客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온지 오래되는데 壬寅年(1902)봄에 내가 諸宗人에게 亭子와 구지(舊址)에 관한 來歷을 알리고 議論하여 財物을 出財하도록 하여 數間의 精舍를 짓기로

하니 族弟되는 정구(鼎九)가 그 일을 감독하였는데 이제 마침내 그 役事를 마치고 扁額을 걸으니 이르기를 【穎樂亭】이라 했다.

아! 기쁘도다 泉石은 깊숙하고 그윽하여 아름답고 煖雲이 견잡을 수 없이 황홀하다고 할만하다. 생각해 보면 바로 나의 先祖님들께서 놀다 쉬시던 곳으로 적막(寂寞)한 해변(海濱)처럼 쓸쓸하지 않을 亭子로 이미 수백년 전에 지으셨는데, 이제 그를 復舊하고 일가들이 모이고 손님을 맞아 술마시며 눈물을 흘리는도다. 그러나 대저 즐거움은 지난날에 이 亭子를 이룩하지 못하여서 근심하던 바를 쓸모없게 하지 않아야 함이다.

우리 宗中の 참으로 근심할바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겠는가? 만약에 놀기를 좋아해 방탕하게 하며 지난날의 근심하던바를 妄覺한다면 바로 이것이야말로 後日의 근심거리가 아니겠는가.

그 근심할바라 함은 비단 이 亭子의 興廢에 관해서 근심하는 것만이 아니라 行義敦睦(行義敦睦)함으로서 先祖님들이 끼치신 遺訓을 지켜서 실추(失墜)하지 않도록 서로 힘써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



『학천정 전경』



『영락정 전경』



『영락정 현판』

없이 걱정해 나아가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참 즐거움이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래도록 즐거움을 간직하며 이 후자가 썩어 허물어 지지 않게 하는 計策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뒤를 이어서 오게 될 後孫들에게도 또한 같을 것이다. 영강의 물은 혹시 흐르는 길이 갈리고 서로 흐트러져서 흐른다 하더라도 그 根源은 같은 것이다. 오호라! 물이로다 흐르는 물이로구나.

위와 같은 頌樂亭記를 지으신 諱寅九 族先祖께서는 또한 다음과 같은 詩를 남기시었는데 이 詩도 聞慶郡誌에 실려서 傳하여 오고 있다.

소소경영노대성(少少經營老大成) : 젊어서 적게 시작한 사업이 늙어서 크게 되니

일단화수진환정(一團花樹盡歡情) : 우거진 꽃나무들을 보니 기쁘고 즐겁기 그지없네

다년상로추시강(多年霜露迫時感) : 지나온 여러해를 돌아보니 감회가 새롭구나.

차일운인궁구성(此日雲仍肯構誠) : 오늘의 후손들은 선조의 유업과 뜻을 받받아 정성을 바치니

가애고송당호립(可愛孤松當戶立) : 아름다운 소나무 한그루 문가에 마주섰고.

편인유초민정성(偏隣幽草滿庭生) : 가엽스레 작은꽃과 깊게 우거진 풀이 마당에 찾구나

후인약복능수집(後人若復能修輯) : 후세사람 만약 다시금 책을 엮거든

서기시명불후명(庶幾斯名不朽名) : 바라건데 頌樂亭이란 이름 없애 지지 않고 永遠하게 하라.

이와같이 參判公派의 退陰公(琦) 後孫들의 崇慕하는 齋室인 頌樂亭에 관하여는 十代孫되는 다른 後孫인 萬用(字 華汝, 好直養齋 1839-1915 直養齋集의 著書. 淵齋 宋秉濬 先生門人. 芳茂氏의 高祖)公께서 지으신 直養齋集에도 頌樂亭기가 있다.

【鶴泉亭의 歷史】

聞慶市 加恩邑 完章里(별바위)에 또하나의 牛峯李門과 關聯되는 由緒 깊은 후자가 있으니 仙遊洞 玉溜臺에 있는 鶴泉亭이다.

이 후자는 顯祖이신 도암 이재(1680-1746)선생의 從弟이신 知菴 李維(1704-1738)先祖께서 仙遊洞의 上流에다 屯山精舍를 構築하였다가 消失되었는데 1901년에 聞慶의 直養齋先生(諱萬用 字 華汝 1839-1915)과 寅九(字 克輝

1852-?)先祖께서 中宗 임금을 說得하고 또한 儒林들에게도 알리고 參與를 勸誘하여서 現位置인 仙遊洞에 鶴泉亭을 이룩하고 1902년 壬寅에는 舊韓末의 巨儒이신 淵齋 송병준선생을 모시고 講學을 하였다고 하는 뜻깊은 후자이다.

또한 이 후자에는 陶庵 李緯선생의 影幀을 모셔 놓고 있으므로 後孫들은 깊이 알고 이 근처를 지날 때는 반드시 옷깃을 여밀 지어다. 이 학천정에 관하여는 연제 송병준선생께서 임인(1902년)에 남기신 학천정기가 전하여 오고 있는데, 직양제집에는 학천정의 유래가 비교적 상세하기에 그 대강을 소개한다.

학천정기(鶴泉亭記)

(직양제 집에서)

大治山의 서쪽에 華陽洞(지금의 충북 화양동)이 있고 동쪽에는 蜂岩(지금의 벌바위)이 있는데 봉암에 仙遊洞이라는 곳이 있으니, 이 두 溪谷의 산줄기와 골짜기가 산명수려(山明秀麗)하기가 서로 겨울 만큼 매우 뛰어나서 오랜 옛적부터 유현(儒賢)들의 강도(講道)하는 곳으로서 알려진지 오래이다. 도암선생께서 일찍이 이곳 산꼬리의 뺨어내린 물가에 정자를 지으신 일이 있었는데 또한 그에 따라서 1738년(영조 14년)봄에는 도암 선생의 종제이신 지암공(諱維, 字 大心, 1704년-1738)께서 선유동 상류에다 정자를 구축하시고 屯山精舍(屯山精舍)라 하셨는데(지금의 龍湫 부근으로 추측 됨) 그 후에 화재를 당하셔서 칠십여년동안이나 담장은 무너지고 마당은 매물런체 비참한 모습으로 버려져 있었는데, 이로인하여 학문(學問)의 전수(傳授)는 아득히 멀어지고 儒學은 없어지고 講道의 길이 막혀 버리자, 원근인사(遠近人士)가 모두 개탄해 마지않았다. 그러는 동안에 옛 전통을 계승하지 못하고 내려오다가 辛丑年(1901년) 봄에 족질(族侄)되는 寅九(1852年-?)와 더불어서 宗中에 의론(議論)을 돌리고 또한 유림(儒林)의 제군자(諸君子)들과도 도모(圖謀)하여서 힘들여 초목을 베고 흙을 깎아서 정자를 짓기 시작하니 당시(當時)의 군수(郡守)인 이재하공(李宰夏公)이 옛 터전은 너무 깊고 길이며니 학대(鶴臺)의 밑에 있는 바위 玉석위로 옮기기를 제의(提議)하자 이에 뜻을 같이하여 찬동(贊同)하였다.

선생(先生)의 오세손(五世孫)되는 호석(鎬奭)께서 마침 이를 아시고 성주부사(星州府使)가 맨먼저 백꾸러미의 돈을 찬조(贊助)하여 주시니 그 가문(家門)의 전통(傳統)으로서 유서(由緒)깊은 터전이 황폐화(荒廢化)되는 것을 차마

그대로 버리지 못하시는 의(義)로운 마음씀이 참으로 절실(切實)하셨도다. 금년(今年) 삼월에 연제 송병준선생이 배석(陪席)하신 아래에 이곳에 강학(講學)의 자리를 마련하였고, 이 해 가을에 선생의 영정(影幀)을 이정자(亭子)의 좌측(左側)에 편안히 드시게 하니 그 풍채와 용모의 엄연 하심이 완연히 영령(英靈)이 강림(降臨)하시어서 대학자(大學者)의 자리에 앉으시어 오랜 세대(世代)에 걸쳐서 앉아계실 것 같으니 학문(學問)과 문장(文章)을 사랑하는 여기있는 여러 선비의 우리들과 기원이 어찌 없을 것이라. 아 온 천하(天下)가 음(陰)한 기운(氣運)으로 뒤덮여진 엄동설한(嚴冬雪寒)에도 한가닥 따스한 햇빛이시니, 의지 할 곳으로 지켜주시고 배우지 못해서 밝은가르치심이 부족(不足)한 이 시기(時期)에, 밝게 강구(講究)하여 사리(事理)를 밝혀 주소서, 이는 곧 선생의 바램이실 뿐 아니라 사림(士林)들에게도 또한 큰 행복이겠습니다.

이 정자(亭子)에 올라서 보면 촉대같은 아름다운 봉우리들이 두 손을 마주잡고 읊(揖)하는 것같이 솟아있고, 아래는 옥수(玉水)가 흐르며 그 속에 달빛이 아름답고 그윽하게 빛나고 있으니 천하(天下)절경(絶景)이라, 이 어찌 사람이 만든다고 해도 이렇게야 만들 수 있겠는가. 샘 위쪽에 학이 깃드는 곳이 있으니 편액에 학천이라 하였다.

鶴泉亭 告辭

仙遊의 明月는 鶴泉에 잠겨있고 磐石위 玉水는 세월을 주름잡아 흐르는데 屯山精舍의 脈을 이은 鶴泉亭은 그림 되어 仙遊九谷에 들러있다.

鶴이 깃들인 老松은 허리 굽혀揖을 하고 山高水長의 해묵은 글씨는 이끼를 웃삼아 걸쳤구나

儒林 諸賢은 도암, 지암 뜻 받들어 鶴泉亭을 세웠으니

萬古忠節 최치원은 글로서 찬양했네

祖上님의 講道하심이 仙遊 玉石에 아직도 새롭거늘

무심한 後孫들은 無知로 百年을 살았으니, 오호 통캐리 陶庵, 知菴의 출중하신 學文은 덧없는 세월속에 잠들고 말았구나.

儒林의 靈魂들이 잠든 鶴泉에는 지나는 容들의 어지러움 많이 남았는데 부디 後孫들의 仁靈됨을 용서 하옵시고 새 千年이 펼쳐지는 날 그 榮華 되찾아 울리오리다.

1999年 8月 22日 聞慶宗中 2次 花樹會에 붙여

頌樂亭 告辭

白頭의 精氣가 小白의 남쪽 자락 茅亭山에 모이도다

靑華의 明鏡止水는 滌江으로 휘감아 도는데 조상님이 처음 터전을 닦으시고 靈敏하신 곳 屯山精舍의 脈을 이은 頌樂亭이라네

奇岩 절벽과 어우러진 玉山은 仙鶴이 깃드는 老松위에 瑞氣가 황홀하다.

族先祖 右議政 逸休亭公께서는 親族의 情을 一等으로 하였는데 無知한 後孫들은 100년이 지나서야 이 터전을 다시 가꾸게 되었음을 어찌 애통하다 아니하리오.

이제 親族들의 協贊을 모아 다시 頌樂亭을 復元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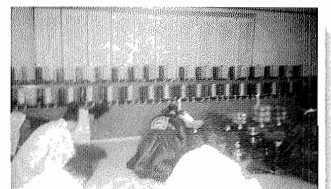
一家들이 다시 모이고 손님을 맞아 즐거워하고 눈물을 흘리도다

아아 後孫들은 모두가 손을 맞잡고 子子孫孫 이어갈

이 터전 위에 찬란한 榮華를 꽃피어 보자

서기 2000년 10월 12일  
영락정을 복원하면서서 13대손 허윤  
李 昌 寧 지음

“조상님께 문안 올립니다”



『우뚱이씨 대종회 정기총회 및 시제를 위해 모인 종친들.』

시제를 마친 종친들이 영모당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